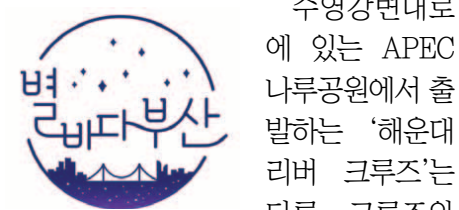


리버 크루즈·패들보트 타고 부산 밤바다 만끽

부산은 자연경관부터 시티투어, 문화·역사탐방까지 무척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진 매력적인 여행지다. 요즘 부산은 SNS 인증샷과 체험투어를 선호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춰 ‘인스타그램머블’한 명소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멋진 전망의 도심형 크루즈부터 오밀조밀 골목을 거닐며 차 한 잔을 즐기는 도보투어가 있는가 하면, 야간 도심 드라이브의 재미를 주는 체험상품도 등장했다.

리버 크루즈, 강·바다야경 모두 감상
신기산업 루프탑, 영도 일몰 장관
환여울길 따라 바다보며 골목 투어
투어지, 초소형 전기차로 드라이브

●“와, 여기가 야경 맛집이네”



수영강변대로에 있는 APEC 나루공원에서 출발하는 ‘해운대 리버 크루즈’는 다른 크루즈와 비교해 색다르다. 이 크루즈는 강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수영강 물살을 가르며 느긋하게 나아가는 크루즈에서 양 강변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노라면 배는 어느새 광안대교까지 이른다. 부산 최초의 도심형 유람선으로 낮에도 운항하지만 경치로는 단연 나이트 크루즈가 최고다.

영도의 카페 신기산업은 부산서 바다전망 카페투어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사무용품 제조사 신기산업이 사옥 일부를 카페로 운영하는데, 팝아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옥상 루프탑에 널찍하게 배치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눈 아래로 부산항대교와 영도 일대가 짙 펼쳐진다. 다리와 배, 항구 하역시설들에 불이 켜



수영강변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해운대 리버 크루즈. 골목의 정취와 바다 전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환여울문화마을, 해안절경을 열차 안에서 볼 수 있는 해운대 관광열차 블루라인 파크, 초소형 전기차로 도심 드라이브 즐기는 체험상품 투어지(위 사진부터 시계방향). 부산 | 김재범 기자

지는 일몰 무렵이 특히 멋있다.

●“바다 즐기는 슬로우 투어 명소들”

영도 환여울문화마을은 감천동 문화마을과 함께 골목길 투어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환여울길은 두세 명이 마주 지나가기도 좁은 길이 굽이굽이 이어진다. 한쪽으로 바다가, 반대쪽에는 예쁜 카페나 가게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다. 오밀조밀한 골목을 거닐며 터덕터덕 거니는 것이 이곳 투어의 ‘국룰’이다.

아래쪽에는 절영해안산책로가 있다. 부산 전역에 조성된 갈매길(263km)의 3-3구간으로 아곳 환여울해안터널은 인싸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을 탔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는 미포에서 청

사포를 거쳐 송정까지 운행하는 4.8km 길이의 관광철도다. 동해남부선 옛 철도를 재개발했다. 동부산의 해안 절경을 기차에 앉아 감상할 수 있다. 관광열차 외에 7~10m 높이 공중을 운행하는 스카이캡슐도 있다.

이제는 부산 대표 관광시설로 자리 잡은 송도해상케이블카에는 지난해 새 명소가 추가됐다. 6월 개통한 송도용궁 구름다리다. 예전 송도해수욕장 송림공원에서 거북섬까지 150m를 연결했던 구름다리를 18년 만에 장소를 옮겨 복원했다. 길진 않지만 다리 바닥으로 바다가 훤히 보이고, 다리 중간부터는 약간의 흔들거림도 느껴져 제법 스릴이 있다.

●야간 드라이브·패들보트, 색다른 액티비티

투어지(TOURZY)는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한 드라이브 상품이다. 관광 벤처 스타트업 투어스테프에서 개발한 비대면 모빌리티 셰어링 서비스(관광지 차량 공유 서비스)다. 해운대 벅스코와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부산 주요 관광거점에서 50대를 운영한다.

광안리SUP존은 부산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해양레저 시설이다. 카약, 고무보트, 패들보트와 같은 해양레포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LED 조명이 부착된 패들보트를 타고 광안리 밤바다를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다.

부산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롯데월드X넥슨 카트라이더 어트랙션 등장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18일 파크 1층에

넥슨의 인기 게임 ‘카트라이더’를 오프라인으로 즐기는 새 어트랙션 ‘월드 카트레이싱’을 오픈한다. 서킷 레이싱(사진)과 패밀리 레이싱 등 두 개의 존으로 운영한다. 서킷 레이싱은 최근 e스포츠에서도 각광을 받는 심 레이싱(Sim Racing) 시스템을 도입해 카트라이더 캐릭터로 꾸민 원형 경기장에서 최대 8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카트라이더를 할 수 있다. 패밀리 레이싱은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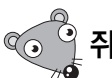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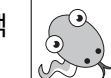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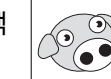
모션제어에 앉아 화면 속 카트라이더를 즐기는 콘텐츠다.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 7월16일 재개장
북한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스카 씨메르와 실내테마파크 원더박스를 7월 16일 재개장한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재개장을 기념해 22일, 24일 오픈되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7월 10일 사전 무료체험 기회를 선착순으로 준다.

씨메르는 이국적인 아쿠아 스파존과 한국 찜질방 문화를 접목한 공간으로 SNS 인생샷 명소로 인기를 끌었다. 원더박스는 다이내믹한 어트랙션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갖춰 이색적인 가족 나들이 장소로 자리 잡았다. 파라다이스시티는 28일부터 얼리버드 상품을 판매하고, 7월 19일부터 주중 객실 패키지 이용객 대상으로 씨메르와 원더박스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18일(금) 음력: 5월 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겠지만 노력하면 이룬다.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말라.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섬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나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쏟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패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자람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레저

스포츠동아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15

“가능성+스타일 다 잡은 여름 필수템” 노스페이스 ‘데일리 쇼츠 컬렉션’ 출시

쾌적한 숏 기장 제품부터 아웃도어 카고형까지



‘버니 쇼츠’를 착용한 노스페이스 홍보대사 김요한.
사진제공 | 노스페이스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여름철을 맞아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할 수 있는 ‘데일리 쇼츠 컬렉션’ 신제품을 출시했다.

물놀이, 캠핑(캠핑+피크닉), 하이킹, 차박 등 여름철 아웃도어 활동과 일상에서 멋스럽고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구성했다. 올여름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숏기장 제품부터 아웃도어 활동에 잘

어울리는 카고형까지 액티비티 스타일과 바캉스 계획에 따라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프로젝트 데일리 쇼츠’는 허리에 벨트가 내장된 기본형 쇼츠. 적당한 길이감과 넉넉한 실루엣으로 데일리룩 입기 좋은데다 허리 벨트로 체형에 맞는 핏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뒷주머니에 지퍼를 부착해 소지품 수납은 물론 패킹볼이 가능해 쇼츠를 접어 작게 휴대할 수 있다.

‘버니 쇼츠’는 최근 유행하는 짧은 기장의 쇼츠이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길이감으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 몸에 잘 붙지 않고 스트레치가 있는 원단으로 제작해 야외활동이나 물놀이 시 편안하고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

등산,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즐긴다면 ‘벅스턴 카고 쇼츠’가 제격이다. 카고 포켓을 장착해 수납력이 좋고 스트레치 소재로 활동성이 뛰어나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신축성 있는 허리 밴드에 벨트까지 추가돼 흘러내림 염려 없이 활동적인 액티비티가 가능하다. ‘스티프 쇼츠’는 가볍고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나일론 타슬란 소재로 제작돼 여름철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좋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블랙야크, 30일까지 ‘야크아이스 기묘한 챌린지’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회장 강태선)가 냉감 제품 서스펜스 이벤트 ‘야크아이스 기묘한 챌린지’를 30일까지 진행한다. 전국 블랙야크 매장 및 전광판, 버스 쉼터, 지하철 플랫폼 등에 설치된 아이유의 야크아이스 포스터를 배경으로 찍은 인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고 블랙야크 운영 계정에 게시물 DM으로 보내면 된다. 심사를 통해 ▲1위 아이폰12 미니 64GB(1명) ▲2위 애플워치 SE 40mm GPS(3명) ▲3위 에어팟프로(5명) ▲4위 아이유 야크아이스 티셔츠(100명)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오늘의 날씨				18일(금)			
서울	60/60	인천	60/0	춘천	80/60		
	18		18		19		
	24		22		25		
강릉	60/0	대전	60/60	전주	60/60		
	20		20		20		
	28		25		25		
광주	60/30	대구	30/60	부산	60/60		
	20		19		19		
	26		27		24		
창원	60/60	제주	30/60	지역	강수 확률		
	19		20		(오전/오후)		
	25		24		최저		
					날씨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0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광고국장 이숙옥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